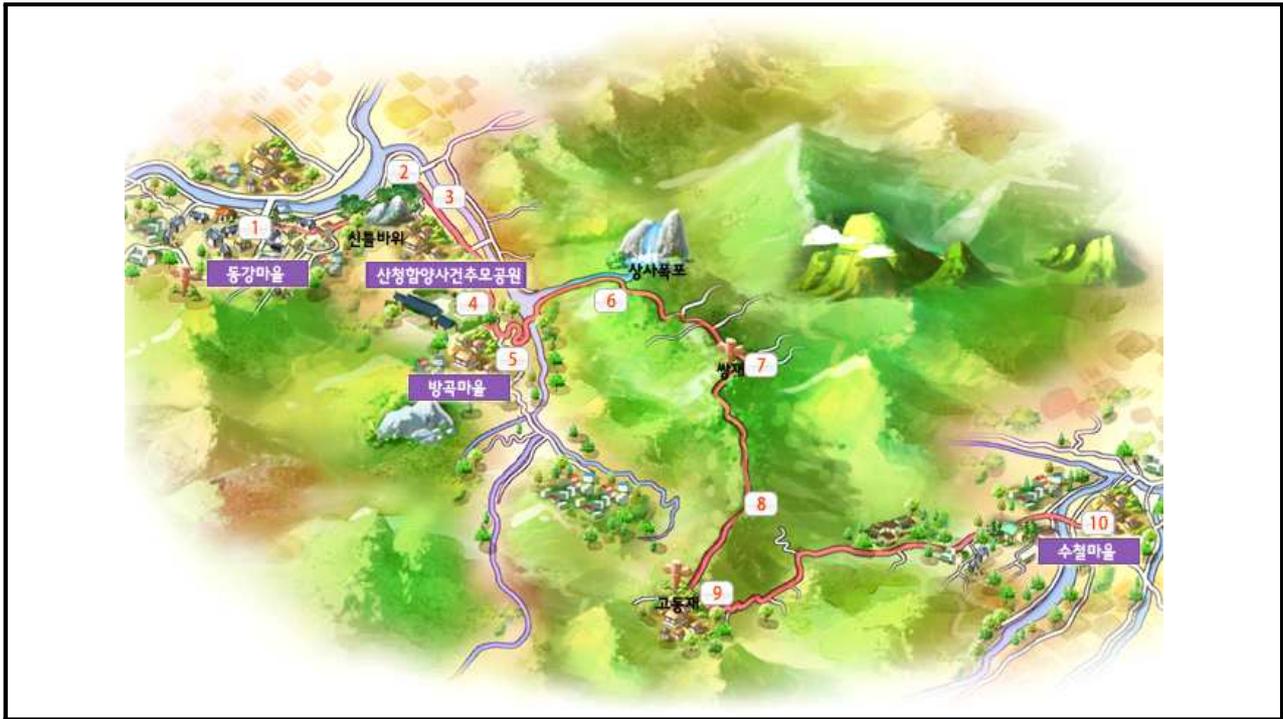


동강-수철 구간

■ 코스 지도



■ 오디오 가이드 리스트

구분	지명	주요내용	비고
1	구간소개		인트로
2	동강마을	주민들의 삶	민속자료 / 생태
3	신틸바위	신틸바위 이야기	민속자료
4	도로	가야국의 마지막 흔적들 - 산청 전 구형왕릉(山淸 傳 仇衡王陵)	마을 / 인물
5	산청함양사건추모공원	사건개요 및 주민증언	문화재
6	방곡마을	방곡마을의 유래	민속자료
7	상사폭포	상사폭포의 전설	생태 / 역사
8	쌍재쉼터	지명의 유래	민속자료 / 생태
9	산불초소	주변경관	민속자료 / 마을
10	고동재	지명의 유래	마을 / 인물
11	수철마을	마을이야기	역사

1. 구간 소개

도시보다 빨리 찾아드는 아침. 닭 울음소리에 자명종 없이도 잠에서 깬다.

단출하게 꾸려온 집이기에 따로 챙길 것도 없다.

그래도 자고 난 이부자리는 개켜놓고 가야지. 한참 부산을 떠는데 민박집 주인 할머니가 아침 먹으러 오라며 손수 방문 앞까지 부르러 나오신다.

밥상을 차려놓고 아침을 깨워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건 참 기분좋은 일이다.

한 끼 오천 원짜리 밥상에 상다리가 휘어지고 상은 넘친다. 이름 모를 산나물무침만도 다섯 손가락으로 꼽지 못할 정도다. 청국장의 구수한 냄새가 방안 가득 퍼진다. 할머니가 꺾꺾 눌러 담은 고봉밥을 내미신다. '모자라면 더 먹어' 푸짐한 인심에 벌써 배가 불러오는 기분이다.

편하게 먹으라고 길손에게 뜨끈한 안방을 내어주신 주인 할아버지는 좋아하는 TV 아침 프로도 양보하신다. 밥 한 술, 찌개 한 숟갈, 반찬 한 젓갈. 익숙한 맛이 느껴진다.

오랫동안 먹어보지 못한 집밥의 맛. 어머니가 해 주신 밥이 아닌데도 어머니의 맛이 전해온다.

긴장이 풀린다.

전쟁이 활궤고 간 산청과 함양, 그 사이를 잇는 동강-수철 구간을 걷는다는 생각에 묵직했던 마음이 단단한 기합으로 바뀐다.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 비극의 흔적이 남은 마을들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 지나치게 앞서 나갔던 걱정들이 따뜻한 승냥 한 모금에 녹아내린다.

배가 부르니 마음까지 든든해진다.

이제야 제대로 길을 떠날 준비가 된 듯하다. 한 걸음 크게 떼어놓는다.

2. 동강마을

눈길 닿는 곳 마다 뱃나무와 목련나무가 서 있다. 그 사이로 나란히 뻗은 두 개의 길을 따라 늘어선 동강 마을이 나타난다. 길 사이로 흐르는 냇물은 엄천강을 향해 느긋한 춤을 추며 흐른다.

동강마을의 원래 이름은 평촌이었다고 한다. 돌레길을 걷다보면 평촌이란 이름을 가진 마을을 심심치 않게 만나는데, 그런 마을들은 거의 예외없이 너른 평야 위에 자리잡고 있다. 그런데 이런 경사진 땅에 흐르듯이 서 있는 마을이 어떻게 평촌이란 이름을 얻게 된 것일까. 마을을 둘러보면 그 답을 알 것도 같다. 이곳 동강에는 평평한 땅 대신 평탄한 삶과 평안한 마음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마을 어른들은 이 마을의 평화가 뒷산의 칼바위 덕분이라고 한다. 칼바위는 남근석이다. 호기심에 눈으로 열심히 뒷산을 훑어보지만 그럴만한 바위는 보이지 않는다. 내 시선을 눈치 챈 어른들이 웃으며 한마디 보태신다. **“예끼, 총각. 거 칼바위는 수풀에 숨어서 안보인다카이. 그게 안 보여야 마을에 복이 들어오는 뱀이거든. 그게 딱하니 드러나 있으면 마을이 망한다 안카나.”** 산자락 마을인 만큼 산에 나무가 많고 숲이 우거져야 마을도 잘 된다는 뜻이리라. 동강마을은 농사를 크게 짓는 것도 아닌데 함양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부자 동네였다. 게다가 한국전쟁 때 산청 일대에서 일어났던 양민학살사건의 피해도 이 동강마을은 비켜갔다니, 칼바위의 영험함이 거짓은 아닌 듯도 싶다.

하지만 동강마을에 풍요를 가져온 일등 공신은 바로 마을 사람들이다. 마을 사람들이 워낙 부지런하고 검소한 덕에 원래는 함양군에서 가장 가난했던 마을이 내로라하는 부촌이 된 것이다. 동강 사람들은 논일, 밭일에 돼지를 치는 일 말고도 농사일이 덜 바쁜 겨울철엔 고기잡이를 하고 수시로 엄천강에서 다슬기를 채집해서 내다 판다. 그렇게 번 돈을 열심히 모아 자식들 대학도 보내고 결혼도 시켰다. 아직도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 산다며 은근히 자랑을 하시는 어른신의 얼굴에서 자부심이 느껴진다.

어르신들과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다리가 불편한 한 어르신이 눈에 들어온다. 의족을 한 다리 때문에 하루 종일 이렇게 마을 쉼터에 앉아서 소일하신다는 어르신은 전쟁이 끝나고 먹을 것도 농사지를 땅도 없었던 시절, 지리산에서 별목일로 생계를 꾸리셨다고 한다. 어린 다섯 남매를 먹여살릴려면 당시엔 그 수밖에 없었다며 어르신은 씩씩한 미소를 짓는다. 360근이나 되는 별목장비를 짊어지고 매일 같이 산을 다니셨다는 어르신. 360근이라..한 근이 600그램이니까 계산을 해보니 200킬로그램도 넘는 무게다. 작은 배낭 하나 매고도 혁혁대며 걸어 온 산을 어른 셋을 업고 올라다녔다는 얘기가. 생활의 짐이 더 무거웠기에 200킬로그램 엔진의 무게가 외려 가볍게 느껴졌던 것일까. 하지만 어르신은 그 때 힘줄이 잘못 되어 피가 고이고 살이 썩어 결국엔 다리를 잘라낼 수밖에 없었다고... **“요즘은 약도 좋고 기술도 좋고 하니까, 돈만 있으면 고칠 수 있을 줄 알았지.”** 장성한 자식들이 도시로 나가고 할머니도 세상을 뜨신 후엔 늘 이렇게 마을 어귀에 혼자 앉아 계신다는 할아버지. 그래도 도시에서 각기 제자리를 잡고 잘 살고 있는 자식들 얘기가 나오자 금새 얼굴 가득 함박웃음이 퍼진다.

어르신 의수를 바라본다. 자식들을 남부럽지 않게 먹이고 입히고 교육시킨 것은 원래 저 자리에 있었던 할아버지의 다리였다. 쟈 체 하며 매고 다니는 넥타이도 어찌면 이 땅의 풀뿌리에서 비롯된 것이리라. 땅과 어머니. 아낌없이 주는 이들이 있었기에 현재의 내가 있음을 다시금 생각하게 된다.

3. 신틀바위

발두령 너머 시원한 하늘을 배경으로 집채만한 바위가 서있다.

언제부터 저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것일까, 커다란 덩치에 반 정도가 푸르게 변색되어 있다.

짚신을 삼을 때 날줄이 되는 실을 걸어 놓는 틀을 닮았다 하여 저 돌산은 신틀바위란 이름을 얻었다고 한다. 어, 그런데 아무리 뜯어보아도 모를 일이다. 저 밋밋한 모양새가 어째서 신틀을 닮았다는 것일까?

민속촌에서 본, 짚신 삼는 장면을 떠올려본다. 신틀은 분명 두툼한 각목에 손가락 두세 개 굽기만한 기둥을 두세 개 세워놓은 모습이었다. 한발 쯤 꼬아둔 새끼를 신틀에 거는 것으로 짚신삼기는 시작된다. 걸어놓은 새끼를 날줄 삼아 바닥을 짠 다음 그 가장자리를 두텁게 꼬아 날을 세운다. 두툼해진 모서리를 따라 다시 짚을 감아올리면 발을 싸는 몸통부분이 만들어진다. 그런 다음 신발이 벗겨지지 않도록, 감아올린 줄들을 가는 새끼줄로 꿰어 돌려 발목 부분을 만들어주면 비로소 짚신이 완성된다.

이렇게 신틀을 사용해 만들어 내는 신발은 짚신 뿐만은 아니었다. 삼이나 모시, 종이로 더 곱게 더 정교하게 짜 올린 미투리도 있었다. 하지만 먹고 살기에도 빠듯한 민초들에게 미투리는 정말 특별한 날에나 신는 나들이 신발이거나 한양에 내다팔기 위해 만드는 물건일 수밖에 없었다. 그 옛날에도 도시 사람들은, 직접 신발을 짜지 않고 사서 신었다고 한다. 도시 사람들이 생활에 필요한 기술들을 잊고 산 건 어제 오늘일이 아닌 듯싶다. 그나마도 돈 좀 있고 지체 있는 양반들은 미투리를 신는 것조차 부끄러워 가죽신을 고집했다고 하니, 도시 사람들의 못난 버릇은 이미 그 때부터 대물림되어 온 것일지도 모르겠다.

신발은 잘 닳아 없어지는 물건이기에 가죽처럼 질긴 재료로 만든 신발을 신고 싶은 마음이야 시골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있을 터이다.

하지만 구하기도 힘들고 가공하기도 힘든 가죽으로 신을 만들어 신는 것은 그들에게 지나친 사치였을 것이다. 시골 사람들이 짚신을 널리 애용한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 일 년 삼백 육십오 일 농사일에 발에 흙이 떨어질 날이, 물이 마를 날이 없었던 농사꾼들에겐 바람 잘 통하고 물기 잘 마르는 짚신이 최고일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닳아서 못쓰게 된 짚신은 가축의 똥오줌에 묻어 썩혔다가 거름으로 재활용까지 하였다니, 짚신은 그야말로 농군들을 위한 신발이었던 것이다.

둘레길을 향해 집을 떠나던 날, 묵혀둔 등산화를 꺼내려고 열었던 신발장의 모습이 눈앞에 그려진다.

신지도 않는 신발들로 가득했던 신발장. 밑창만 갈면 몇 년이고 더 신을 수 있는데 쓰레기 마냥 처박혀 있는 신발들.

켜켜이 쌓인 먼지가 도시 생활에 찌든 내 마음의 뗏자국인 듯 하여 신틀바위를 바라보는 눈길이 무안해진다.

4. 가야국의 마지막 흔적들

방곡천을 따라 이어진 국도를 걷는다.

강바람을 맞으며 걷다보니 어, 아는 얼굴이다. 어젯밤 민박집에서 쑥스럽게 눈인사를 나누었던 청년이 방곡천 너머 무언가에 초점을 맞추어 열심히 셔터를 눌러대고 있다. 이어지는 국도에 깜빡 지루해질 참이었던 터라 스치는 인연도 반갑다. 시선을 느낀 것일까, 청년도 이쪽을 보며 가벼운 인사를 건넨다.

“저 쪽 저 산이 왕산이에요. 높이는 해발 923미터. 금관가야의 마지막 왕인 구형왕이 살았다고 해서 왕산이라고 불러요. 신라의 명장, 김유신 아시죠? 김유신이 바로 구형왕 증손자예요.”

청년의 박식함에 흠칫 놀란다. 청년은 부산에서 역사를 공부하는 학생이라며 자신을 소개한다.

“구형왕이 신라에 항복한 후에 저 산으로 옮겨와서 살았다고 해요. 왕산에 ‘유의태 약수터’ 라는 곳이 있는데 그 밑이 구형왕의 거처였던 수정궁 터라고 알려져 있어요. 물론 지금은 사라지고 없지만요. 보통 약수터는 물이 졸졸 나오잖아요? 근데 그 약수터에 가 보면 물이 아주 팔팔 흘러요. 맑은 물이 넘치는 샘터와 수정궁, 왠지 잘 어울리는 것 같지 않아요?”

신이 난 청년의 말이 팔팔 흐르는 약숫물처럼 쏟아진다. 졸지에 고등학교 국사시간으로 돌아간 기분이지만, 그 시절처럼 지루하지는 않으니 다행이다.

“궁은 없어졌지만요, 왕릉은 남아있어요. 근데 이름이 좀 특이해요. ‘산청 전 구형왕릉’. 여기서 ‘전’ 자가 중요한데요. ‘그렇게 전해진다’ 는 뜻이거든요.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이 무덤이란 게 7미터가 넘는데, 피라미드처럼 돌을 정교하게 맞물리게 해서 쌓은 거거든요. 그런 무덤은 가야에서도 신라에서도 나온 적이 없어서 아직 그렇게 짐작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절대 허무맹랑한 전설은 아니라고 청년은 뜻을 박는다. 조선시대 산청군에 지방관리로 있던 민경원이라는 사람이 이곳 돌무덤에서 기우제를 지내고 근처 절인 ‘왕산사’에 들렀는데 선반에서 먼지가 가득 한 나무 꺾을 발견했다고 한다. 절에서는 이 꺾을 열어보면 우환이 든다하여 천년 넘게 그냥 보관만 하고 있었는데 호기심이 동한 민경원은 스님들의 만류에도 이 꺾을 기어코 열고 만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상자 안에는 어느 왕과 왕비의 영정, 갑옷 그리고 활 같은 것이 들어 있었다.

그 물건들의 사연이 궁금했던 민경원은 이리저리 자료를 뒤지고 또 뒤졌고, 그 결과 그것들이 가락국 마지막 왕의 유물이라는 것을 밝혀내게 된다. 그리고 기우제를 지낸 돌무더기가 구형왕의 무덤이었으며, 꺾이 있던 ‘왕산사’는 애초에 구형왕의 뉘를 위로하고 왕릉을 관리하기 위해 지어진 절이었다는 사실도 알아내게 된다. 그 후 민경원은 근처에 사당을 지어 왕과 왕비의 영정을 모시고 제사를 지내도록 하였다. 하지만 그 당시 찾았던 영정도 일제강점기에 도둑을 맞아 없어져 버린 데다, 왕산사도 깨어진 기와와 옹기 조각으로만 남아있어, 아직은 사실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며 청년은 아쉽게 덧붙인다.

경상도에서 나고 자랐으니 따지고 보면 자기도 가야국의 후손이라며, 언젠가 구형왕의 마지막 순간을 제대로 밝혀내고 말 거라는 다짐을 하며 청년은 과외수업을 끝낸다.

뒤돌아 길을 재촉하는 청년의 뒷모습이 너무나 다부져 보인다.

5. 산청 함양 사건추모공원

산청함양양민학살사건.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정월 초이튿날 이곳 산청과 함양에서 일어났던 참극이다. 하루 사이 무려 705명이나 되는 무고한 목숨들이 사라진 일은 참극이란 말로도 부족한 듯싶다. 전쟁에서 적군과 아군이 서로에게 총부리를 겨누는 일이야 어쩔 수 없는 일이라 쳐도, 그 와중에 선량한 백성이 아군의 잘못된 판단에 의해 희생되어버린 이 사건은 감당할 수 없는 참혹감을 일게 한다.

1950년 6월 25일, 갑자기 터진 전쟁에 무방비 상태였던 국군을 밀고 인민군은 낙동강까지 내려오게 된다. 하지만 유엔군이 참전하면서 인민군은 후퇴하기 시작하지만, 인천상륙작전이 성공하면서 퇴로가 막히자, 미처 북으로 가지 못한 인민군들은 남한의 빨치산들이 합세하여 게릴라전을 펼치게 된다.

이들은 국군을 피해 주로 지리산 같은 산악지방에 숨어들었는데, 주린 배를 채우기 위해 종종 주변 마을에서 먹거리를 구해 왔다.

정치나 이념과는 거리가 먼 순박한 마을 사람들은 그저 전쟁통에 굶주린 사람들에게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없는 양식까지 나누어 주었다고 한다.

이 때만 해도 사람들은 그들이 베푼 호의가 자신들을 죽음으로 몰고 갈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터이다.

밥줄을 끊어버리면 빨치산들이 더 이상 활개를 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한 군은 ‘견벽청야’라는 작전을 실시한다.

견벽청야는 성벽을 굳건히 세우고 식량을 모두 성 안으로 걸어 들여 침략해 온 적군을 굶어죽게 만드는 전술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국군은 식량만 거두어들인 것이 아니었다.

마을을 불태우고 주민들을 공비로 몰아 학살하였던 것이다. 사람들은 영문도 모른 채 피를 흘리며 죽어갈 수밖에 없었다.

전쟁이 끝나고도 오랫동안 숨겨져 왔던 이 비극은 1960년 4.19 혁명이 일어나면서 비로소 사람들에게 알려졌다.

이 추모공원이 완성된 것이 2005년의 일이니까, 당시 처참히 죽어간 705명의 억울한 혼령들은 제대로 된 위로 한 번 받지 못하고 50년의 세월을 떠돌았으리라.

어떤 사람은 산청함양추모공원을 두고 지리산 산골에 어울리지 않게 거창한 시설과 구조물이라며 등을 돌리기도 한다.

하지만 아무리 많은 돈을 들여 더 높은 위령탑을 만든다 해도 그들의 죽음이 제대로 애도될 수 있을까.

이미 일어나버린, 지금은 어찌할 수도 없는 역사의 비극.

그 앞에서 이방인은 그저 애처로운 눈길을 한 번 보낼 뿐이다.

6. 방곡마을

여기 방곡마을에 오면 꼭 하고자 하는 일이 있었다.

나름 어설피게나마 둘레길 여행을 준비하면서, 우연히 읽었던 뉴스 기사 속엔 이곳 방곡마을에 산청함양양민학살사건 당시 총상을 입고도 천운을 입어 살아난 할머니의 인터뷰가 나와 있었다. 당시의 어지간한 사정이야 기사를 보면 알 수 있었지만, 웬지 그 할머니를 꼭 한 번 만나봐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할머니의 육성을 들으면 살아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을 것만 같았다. 길을 걷는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만 같았다.

어렵게 물어 물어 찾아가 할머니는 벌을 치고 계셨다. 어디선가 웅~하고 한 무리의 벌떼가 날아드는데, 할머니는 겁도 내지 않고 이방인에게 어서 사진을 찍으라고 다그치신다. 얼떨결에 사진을 찍고 나서야 할머니께 찾아온 용건을 말씀드린다.

“옛날에 그 머 여 머 전쟁난 거? 그거 저짜 가면 그대로 썩 다 있는데, 사진도 다 붙어있고 거서 물어보면 우리보다 더 상세하게 잘 알아.”

불쑥 찾아온 낯선 청년이 떠올리고 싶지 않은 기억을 깨내는 것이 불편하셨던 걸까. 할머니는 산청함양사건추모공원으로 가보라는 말만 하신다. 무례가 되는 줄 알지만 이대로 가려니 발이 떨어지지 않는다. 궁리 끝에, 그 사건 후에 살아남은 분이 몇 분이냐 계시냐며 돌려 여쭙는다.

“살아있는 사람이? 나 기억을 못하겠지. 어릴 때니까. 일곱 살 때 총을 맞았으니까. 여기 딱 세 방 맞았다 아이러. 잘못됐었는데 뭐. 켈 첨에 두 방 맞았을 땐 몰라. 잘 맞았던 기라. 뛰도 아픈 것도 모르고 하마 딱 굶는 거 굶데. 딱 지나가는 기라. 뛰다 보이 구멍이 나가 있는 기라. 이리 붓고 피가 흥건하게 나고.”

눈 앞에서 뿜뿜거리는 벌을 겁내면서도 자리를 뜨지 않는 손주뻘 되는 녀석이 안스러우셨던 걸까.

할머니는 슬그머니 기억의 실타래를 풀어놓으신다. 중요한 연설을 한다는 말에 그저 가야되는 줄로만 알고 학교운동장에 갔던 할머니는 연설 대신 무수한 총소리만 들으셨다고 한다.

한 살 어린 동생과 함께 총을 맞으셨던 할머니는 살이 썩어 떨어져 나가는 고통 속에서도 밥 한 그릇 제대로 먹지 못했다고 한다. 감히 상상도 되지 않는데 마음은 뭐라 말할 수 없이 먹먹해진다. 눈만 감으면, 젖먹이 동생을 업은 채 쓰러졌던 어머니가 눈앞에 떠올랐고 소리를 지르며 눈물을 쏟아 잠에서 깨곤 했다는 할머니.

씻을 수 없는 고통에도 그녀를 이 날 이 때까지 살아갈 수 있게 한 힘은 무엇일까. 이런 얘기를 하시는 와중에도 할머니는 곁에 있던 과일을 씻어 먹어보라며 건네신다.

그 생지옥 속에서 살아남은 마을 사람들 중 많은 분들이 이미 병으로 또는 노환으로 세상을 뜨셨다고 한다. 어떠한 보상이 이들의 상처를 기억에서 사라지게 할 수 있을까?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돌아서는 길, 피로 얼룩진 땅에 눈물이 떨어진다.

7. 상사폭포

은빛 역새가 풀어헤친 머리를 바람에 흔들며 춤을 추고, 소나무의 깔깔한 잎새들이 하늘을 찌르는 길을 지난다. 손수건만한 하늘 한 조각 보이지 않을 정도로 울창한 수풀 속에선 흐르는 계곡물 소리가 사방에서 울린다.

문득 귀가 아프도록 격렬하게 떨어지는 물소리가 들린다.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든다.

8미터는 족히 되어 보이는 바위가 가슴이 뺨 뚫리도록 시원스레 물을 쏟아내고 있다. 상사폭포다.

‘상사’. 서로를 생각하고 그리워한다는 뜻이다. 그 마음을 이루지 못한 남녀의 사랑이야기가 담긴 폭포이기에 이런 애뜻한 이름이 붙었을 게다.

그 언제인지 알 수도 없는 옛날, 양반집 처녀는 평민 총각과 사랑에 빠진다.

이야기속 주인공들이 그랬듯 한창 나이의 두 남녀의 마음은 집안도 신분도 상관치 않았을 터이다.

하지만 두 사람의 관계를 알게 된 처녀의 부모는 어떻게든 두 사람을 떼어놓았고, 강요된 이별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총각은 그만 이 바위에서 몸을 던지고 만다.

사랑하는 이의 죽음을 알게 된 처녀는 매일 밤을 눈물로 지새웠는데, 죽어서 뱀으로 변한 총각이 처녀의 목을 감아 끝내 둘 다 죽어 바위가 되었다고 한다.

처녀는 폭포를 받치는 바위가 되어 멈추지 않는 눈물 같은 폭포수를 흘리고, 총각은 그 아래 상사계곡의 바위가 되어 처녀가 흘리는 눈물을 아직도 받아내리고 있다.

재밌는 사실은, 폭포나 바위에 얽힌 남녀의 순애보는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다른 마을들에서도 흔히 들을 수 있다는 점이다. 사랑을 이루지 못해 목숨까지 버리는 일이 흔한 것은 아니겠지만, 세상의 반대에 속앓이를 하다 헤어지는 젊은 남녀의 사연은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거니와 비단 어느 한 동네만의 일도 아니기 때문이리라.

한참 떨어진 곳에서도 들릴 만큼 강렬한 폭포소리는 사랑을 이루지 못한 연인들의 애절한 절규인 듯 싶다.

8. 쌍재

고개 위에서 갈림길을 만난다. 산등성 사이를 한 줄기 외로이 가로지르는 것이 고갯길인 줄로만 알았는데 이 길에 또 다른 길이 포개져 있다.

고동재와 왕산 방향으로 오르내리는 고개가 이 길에서 쌍재와 만난다.

그 옛날 첩첩산중의 고갯길이라고 해봐야 그 너비가 겨우 한 사람이 지날 정도밖에 되지 않았겠지만, 길이 험해 쉽사리 마을을 벗어나기가 힘들었던 산골 마을 사람들에게 이 갈림길은 바깥 세상으로 통하는 관문 같은 곳이었다.

게다가 이 마을 저 마을에 흩어져 살던 사람들이 스치듯 만나 소식을 나누는 만남의 광장이기도 했을 터이다. 이런 저런 마을 사람들에 떠돌이 장돌뱅이들까지 합세하면 바삐 가야할 용무도 잇고 몇 시간이고 수다를 떨며 시간가는 줄 몰랐으리라. 한 쌍의 고개가 만난 쌍재는 그렇게 수백, 수천의 또 다른 만남들을 주선하여 온 것이다.

이곳 쌍재 갈림길에서 돌레길을 벗어나 ‘왕산’ 방향으로 오를 요량을 하면 지나는 산꾼들이 길을 말린다.

곳곳에 함정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쌓인 낙엽더미를 무심코 밟았다간 아차 하는 순간에 엉덩이 높이까지 빠져버리게 된다.

누군가 일부러 덫을 놓은 것은 아니다.

고령토를 파내고 흙을 제대로 덮지 않아 이렇게 구멍난 길이 되고 만 것이다.

바람이 불어 얇게 덮힌 나뭇잎이나 흙이 날아가면 구덩이들은 고령토의 흔적이 남은 속살을 허영게 드러낸다. 인간의 욕심과 무심함이 자연을 별거벗긴 것이다.

고령토는 흔히들 도자기를 만드는 재료로 알려져 있지만, 파낸 고령토 중에 도자기가 되는 양은 그리 많지 않다고 한다. 아주 질이 좋은 최상급의 고령토에서만 매끄럽고 뽀얀 백자를 뽑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전엔 이미 파헤쳐지고 나서도 버려지는 고령토가 많았다. 하지만 버려지는 고령토에서 귀한 물질을 뽑아내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게 하는 기술이 발명되면서 고령토는 쓰임새 많은 팔방미인으로 거듭나게 된다. 그렇게 새로 태어난 고령토는 거칠고 칙칙한 종이를 매끄럽고 하얗게 만드는 데 종종 쓰인다.

코팅을 하듯 종이의 골골을 메우고 맑은 흰 빛을 덧입혀 말끔한 모습으로 바꾸어주는 것이다.

왕산 곳곳에 패인 상처를 남기고 떠난 고령토가 종이의 패인 흉터를 메꾸어 준다니 이런 역설이 또 있을까 싶다.

9. 산불초소

‘회억~’ 바람이 거침없이 지난다 싶더니 드디어 꼭대기다.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다. 이제 내리막만 남았다 생각하니 안도감이 들기도 하지만 허무한 마음도 든다. 어차피 내려갈 길을 왜 힘들게 올라왔을까. 하지만 그런 생각도 잠시. 이 곳을 밟아야 했던 이유가 눈앞에 펼쳐진다. 북쪽으로 지리산의 능선들이 펼쳐져 있고 동쪽으론 웅석봉과 밤머리재, 서쪽으로는 방곡마을 계곡으로 이어지는 산자락, 남쪽으론 왕산과 필봉산. 사방으로 지리산 갖은 봉우리들이 물결치고 있다. 이곳에 산불감시초소가 세워진 것이 당연하다 싶다.

산자락 사이사이엔 구석구석 마을들이 차지하고 앉았다. 내가 지나쳐온 마을과 또 내가 스쳐갈 마을들. 그리고 평생 밟아보지 못할지도 모르는 많은 땅들. 내가 걸어온 길을 따져보면 몇 평쯤이나 될까. 기껏해야 마을 한두 개를 합친 만큼이나 될까. 내 인생도 고작 그 정도 넓이에서 아등바등거렸던 것은 아닐까. 저도 모르게 헛웃음이 난다.

풍경을 내려다보던 사람들쪽에서 웅성대는 소리가 들린다. 궁금증에 귀를 기울이니 어느 쪽이 진짜 왕산인가를 놓고 실갱이를 하고 있다. 남쪽으로 내려다보이는 왕산에는 정상석이 두 개가 있다. 산에서 가장 높은 곳에 산의 이름과 높이를 적어 세워둔 것이 정상석이니, 모든 산엔 정상석이 하나만 있는 것이 당연할 터이다. 하지만 원래 정상석이 있던 봉우리보다 그 옆의 봉우리가 더 높다는 것이 밝혀졌고 새로운 정상석이 이 봉우리에 올라 선 것이다. 그래서 어떤 이는 옛 정상을 가짜 왕산, 새 정상을 진짜 왕산이라 부르는데, 또 어떤 이들은 이전부터 다녔던 봉우리를 여전히 진짜 왕산이라 부른다. 하지만 알고보면 이런 다툼 또한 실소를 자아내게 한다. 두 봉우리의 높이는 고작 20센티미터, 기껏해야 한 뼘 정도 차이 밖에 나지 않기 때문이다. 봉우리를 덮은 흙이 거센 바람에 날려가거나 폭우에 씻겨 내려가면 그 정도 높이쯤이야 쉽게 빠지고 더해질 터인데, 인간은 그것을 두고 진짜 가짜를 따지며 열을 내고 있으니, 저 너머 천왕봉이 내려다보며 비웃을 일이다.

“나야말로 얼마나 하찮은 일에만 분개하는가. 고작 불쌍한 안내양한테 분개하고, 1백 20원짜리 연탄이 80원짜리 연탄보다 화력이 약하다고 분개하고, 동평화시장에서 산 흠웨어에 달린 열 개의 단추가 하나도 안 빠고 모조리 떨어져서 다시 달고 나서 분개하고, 객식구가 비싼 참기름을 헤프게 썼다고 분개하고 일기에 보가 안 맞아서 분개하고, 꿀 같은 낮잠을 깨운 불청 방문객들을 증오한다. 고작 그 정도가 나의 분개의 분수이다.”

지금은 돌아가신 소설가 박완서 선생님의 글이 생각난다.

‘나는 왜 작은 일에만 분개하는가’. 선생님이 이곳을 다녀가신 적이 있는지는 모를 일이다.

하지만 선생님의 글이 이곳 쌍재 산불감시초소에서 다시금 떠 오른 이유는 뭘까?

10. 고동재

이어지는 돌계단 길에 숨이 차다. ‘고동재’ 라는 이름처럼 뱅글뱅글 말려 올라가듯 놓인 층계를 걷다보면 숫제 헛바퀴를 도는 듯한 기분까지 든다. 학창시절 체육시간에 기합을 받던 생각까지 떠올라 다리는 더욱 무거워진다. 땀별이 내리찍는 날 한 시간 내내 헉헉거리며 운동장 뒷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했던 기억.

그리고 나면 다음날 종아리엔 어김없이 알이 배겼고 교실까지 엉금엉금 기다시피 가기 일쑤였다.

잇고 살던 고통의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돌계단이 반갑지만은 않다.

하지만 너무 가파르거나 미끄러운 길에 길손이 다칠세라 계단을 놓아 둔 이의 고운 마음을 생각하면 감사히 걸을 일이다. 사실 산길에 돌계단을 놓는 데는 이만저만한 정성이 필요한 게 아니라고 한다. 눈에 보이는 돌계단은 한 뼘이 채 안 되는 높이지만 돌뿌리는 땅 밑으로 족히 50센티미터까지 기초를 하고 내려가도록 박아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내리는 비에 휩쓸리거나 사람들의 발길에 채여서 금새 떨어져 나가고 만다는 것이다. 계다가 돌레길을 만들 땐 주변의 자연을 해치지 않기 위해서 최소 반경 50m 밖의 돌을 구해다 층계를 만들었다고 한다. 차도 들어오지 못하는 이 길을 배낭보다 더 크고 무거운 돌덩이를 하나씩 하나씩 이고 지고 걸었을 인부들의 고행에 비하면 이 정도는 불평할 일도 못될 터이다.

그래도 힘든 건 힘든 것임을 어찌겠는가.

잠시 숨을 돌리고 지도를 편다. 지리산이 한 눈에 펼쳐진다.

고동재, 쌍재, 구룡치, 옥십령, 고개도 참 많다. 지도에 나오는 무슨 재, 무슨 치, 무슨 령은 모두 고개를 가리키는 말이다. 돌레길을 걷다보면 산등성이와 등성이 사이 폭 꺼진 부분엔 어김없이 고갯길이 나 있다. 같은 오르막 내리막이지만 산을 타고 넘는 것보다는 훨씬 수월하기에 예전부터 산골 사람들은 고갯길을 걸어 이웃 장터로 근처 마을로 왕래하곤 했다.

‘재’ 나 ‘고개’ 는 이런 산등성 사잇길을 두루 일컫는 말이지만 ‘치’ 나 ‘령’ 같은 낱말엔 다른 의미가 덧붙는다. ‘령’은 가장 높고 험준한 산을 지나는 큰 규모의 고개에 붙는 명칭이다. 대관령, 미시령, 추풍령처럼 큰 산맥을 가로지르는 고개들이 주로 령이라는 이름을 얻는 것이다. 령이라 불리는 고개는 지나다니는 사람도 자동차도 많다.

‘치’는 본래 ‘높은 언덕’ 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그리 높지는 않지만 경사가 급한 고개에 붙는 이름이다. 일전에 걸었던 ‘주천-운봉’ 구간의 구룡치를 생각해보면 그 표현이 실감이 난다. 고개를 뜻하는 말 중에는 ‘현’ 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건 작은 동네 언덕 수준이라 생각하면 쉽다.

하지만 이런 구분이 언제나 꼭 들어맞는 것은 아니다. 대관령은 해발 800미터를 넘는데 반해 서울에서 과천으로 넘어가는 남태령은 높이가 채 200미터도 되지 않는다. 계다가 남태령은 예전에 남현이라고도 불렀다하니 고갯길에 붙는 이름이 법조문처럼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닌 셈이다.

생각해보면 마을이름도 산이름도 누군가가 언제부터 그렇게 부르겠다고 정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동네 사람들이 부르다 보니 그렇게 굳어진 것일 게다. 마을에만 길에만 옛 사람의 흔적이 남아 있는 것이 아니다. 산 하나 풀 하나 언덕 하나에 붙은 이름도 모두 이 길에서 살아낸 삶의 자취인 것이다.

11. 수철마을

무심히 이어지는 눈을 곁에 끼고 심심한 포장도로를 걷다보니 어디서 나타났는지 강아지 한 마리가 허리가 끊어져라 꼬리를 치며 다가온다. 낯선 이를 경계하지 않는 것이 꼭 돌레길 마을 인심을 닮았다.

강아지를 길동무 삼아 걷다보니 이번엔 동네 아주머니들이 붉은 고무대야를 앞에 놓고 늘어 앉아 있다. 지나가는 돌레꾼들에게 ‘밤’이나 ‘둥글레’를 팔고 계신다. 호기심 많은 이방인들에게 시골 사는 이야기를 늘어놓는데 신이 난 아주머니들은 물건 파는 건 외려 뒷전이다. 수철마을의 씩씩한 생활력과 넉넉한 여유가 한꺼번에 느껴진다.

수철마을의 본래 이름은 ‘무쇠점’이었다 한다. 듣기만 해도 묵직함이 느껴지는 이름이다.

옛적에 쇠를 뽑아 무쇠로 솔이나 농기구를 만들었던 곳이 있어서 이렇게 불리게 되었다는데, 마을 북쪽으로 가면 아직도 철맥을 드러내고 서 있는 바위들을 볼 수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그저 철기를 만들기만 한 것이 아니라 캐어내고 불순물을 걷어내고 완성된 물건을 만들기까지 모든 작업을 이 마을 안에서 다 해결했다는 얘기다.

당시 이 마을에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었을까? 기껏해야 수백 명을 넘지 않았을텐데....

지금은 광산과 제철소와 대장간에서 각 분야 전문가들이 나눠 맡아야 해내는 일을 이 작은 마을에서 똑딱 해치울 수 있었다니, 수철 마을 사람들의 두둑한 뱃심은 아마 그런 과거에 대한 자부심에서 나온 듯하다.

그래서일까, 수철마을이 산청 일대를 휩쓸었던 한국전쟁의 상처를 이겨낸 사연에서도 웬지 모를 강단이 느껴진다. 고개를 중심으로 수철마을의 ‘구가지’, 그 건너편은 ‘신가지’라 하는데, 전쟁 당시 좀 더 산중에 있었던 신가지로 빨치산들이 먹거리를 구하러 드나들었다고 한다.

이에 국군은 온 마을 사람들에게 빨갱이라는 누명을 씌우기에 이르렀고 ‘신가지’에서 많은 비극이 일어났다.

이 비극이 있는 후 사람들은 신가지에서 살지 않게 되었다고 한다. 참혹한 사건을 떠오르게 하는 신가지에 들어가지 않는 이유는 흥사가 있었던 집에 들어가 살기를 꺼려하는 이유와 비슷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보다는 오히려 이유 없이 가해진 무자비한 폭력에, 전쟁이 보여준 비인간성에 대한 수철마을 사람들의 저항의 표현은 아니었을까.

마을 한쪽에 게시판이 눈에 띈다. ‘우리마을 도랑살리기 1호. 물고기 노닐고 아이들 물놀이하는 도랑’ 이라는 표어 아래, 냇물에서 물놀이를 하며 맑게 웃는 어린아이들의 사진이 박혀있다.

전국 ‘하천살리기 대회’에서 환경부장관상을 타며 선사받은 현판이다. 수철마을의 돌과 바위 속엔 철이 박혀 있어 예전부터 물이 맑지 못했다 한다. 물가의 바위에서 철 성분이 녹아나와 물고기를 찾아보기도 힘들었다.

이런 불리한 환경을 이겨내고 하천을 살린 수철 마을 주민들의 모습은 사진 속 아이의 물장구 마냥 힘에 넘치는 듯 하다.